

에너지 원료의 중심축인 석유류 값이 장기적 상승곡선을 그치고 있다. 석유자원은 한정돼있고, 그럼에도 세계경제는 호황으로 치달아 세계적으로 흥청망청 분위기가 역력하니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3위의 유류 수입국에 원유소비량 세계 7위국인 한국. 거기에 추운 겨울이 눈앞에 있다. 상식적으로도 누구나 알고 있을 이럴 때쯤엔 대비도 없었던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석유가 어디 난방이나 운송 연료로만 쓰이는 것인가? 나일론 폴리에스테일 등 섬유는 물론 플라스틱 등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생활필수품이다. 기름값과 함께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안으로 값이 오를 터인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자원고갈이란 측면을 들여다보면 밀립의 감소, 쌀 부족 등 유류에 비견되는 수많은 문제가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과소비의 결과이며, 대책은 단 하나. 욕망을 줄이고 절제 절약 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 속에 여론은 절제, 절약 보다 '유류 세를 내어야 한다'는 첫 반응을 보인다. '아껴 쓰겠다'는 의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절제 절약, 맑은 습 같다.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쉽게 등장하는 구호 아닌가. 하지만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절약정신과 세금인하

욕망의 절제와 절약정신이 어디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인가. 일생을 '소비자 마덕'이란 꼬드김을 받으며 살아온 현대인의 혼승된 그 소비정신에 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된 현실이다. 현대는 옛날의 '귀한 말씀'이 이처럼 상업적으로 패러디되는 시대다. 전래되어온 금언이나 마덕은 그의 실현이 아주 어려움에도 쉬운 것처럼 말해진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절제가 쉽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름신'이 유행하는 현

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금언들은 이런 패러디들로 비틀린다. 욕망의 절제를 위한 현대적 자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세기에 '과소비가 유한자원을 고갈 시킴으로 정지적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해 지키자'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캐나다 등지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한국에도 '아껴 쓰자'는 아바바다 운동 등이 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각이 모자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한국은 서구에 비해 이런 운동의 지속성이 약하다. 누군가 '욕망의 유혹에 대한

적당한 대응은 여러 있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겁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겁쟁이로 살면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겁쟁(怯)은 생명보존의 방어 장비이므로 부정부패 퇴폐 낭비의 유혹 등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준다. 어쩌면 여러 종교들이 제시해온 지옥도가 이런 '겁쟁이 만들기' 방편은 아니었을까?

환경위기를 약간 과장해서 보여주는 영화 같은 것도 이런 범주에 들 것이다. 하지만 순진하지 않은 현대인들은 쉽게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 절제 절약을 위한 자상한 세척까지 만들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지난 캠페인들이 흐지부지되고만 실적에서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 절제 절약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체화(體化)시켜야 하는 것이다.

욕망의 절제는 문제에서 시대를 통틀어 연 기법의 체득과 그 체득을 위한 수행으로서의 두 타행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해법은 없다. 불자들은 정발 부처님의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유산을 스스로 체화시키고 그 '저절로'의 경지, 즉 이웃에,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저절로'의 새로운 씨앗을 위기의 지구에 심는 일을 벌여볼 수는 없을까.

불자의 눈

주지스님 첫째 소임은 '포교'

'주지스님의 역할을 바꾸자.' '권위와 사찰대표의 이미지에서 포교사의 이미지로 변화 시켜라.'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포교활동관련 주지 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지스님의 역할과 이미지의 초점을 포교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지스님의 포교 활동과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포교와 지원을 하는 제도가 거론됐다. '주지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학문적 측면을 강화하고 꾸준한 연수교육을 통한 현장직능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들어켜보면 사찰의 역할은 다양하다. 그 중심에 선 주지스님은 지역사회의 종교와 문화 복지를 이끄는 힘의 근원이다. 주지스님의 마인드에 따라 사찰의 위상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일부 포교원들이 잘 입증하는 바다.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 지역복지활동 등 민생에 발을 붙여야 하는 일들은 주지스님의 열성에 따라 효과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몇 가지 테마들은 불교의 미래를 담고 있는 청사진이다. 이 논의가 논의에서 그치지 말고 보다 빠른 시일 안에 힘을 담보하는 제도로 확정되어 주지스님들이 포교의 마당으로 뛰어 나오길 기대한다.

동국대 이사선임 '역전' 계기 돼야

동국대 개방형 이사 선임을 놓고 조계종이 갈등을 보였다. 종회의장과 종회의 한 정책모임이 의견을 달리하는 성명서를 내며 서로의 입장을 주창했다. 종회의장은 종단의 기구에서 추천한 인사의 범위에서 선임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책모임은 그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밖에서 보기에 일종의 지분다툼이었는데 16일 열린 이사회는 새 이사진을 선임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한 결과였다. 이번 이사 선임이 학교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역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올 한 해 동국대는 개교 이래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이제 원만한 사람이면 동국대 하면 '신장아' '학력위조' '염베스님' '장윤 스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지경이다. 무턱대고 학(佛)교대(화)이라 하면 양주동 서정주 경찰행정학과 등을 떠올린 시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이번 이사 선임이 이러한 개만스런 현실을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신장아 사건'이 동국대 이사회에서 발생한 것임을 미루어 본다면 이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뚜렷하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전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동국대의 오늘을 개탄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책임과 새로운 다짐을 통한 빠른 치유를 당부했다. 종단이나 중앙종회 그리고 동국대 이사회는 눈을 세간으로 돌려야 할 때다. 중앙종회의 정책모임을 해체하더라도 화합과 상생의 구조를 확립하지 않으면 재가불자들의 존경과 신앙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6. 방송 선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영방송은 국민 공동자산, 사적 종교표현 삼가야"

전파는 인간이나 동물들이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그 중 통신을 위해 개발·활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또는 한 국가 내의 이해집단 간에 제한된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인가는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지상파 대역을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영방송이란 공적 자산을 특정집단이 사적 목적, 예컨대 종교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것은 공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방송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며, 그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도 무겁다. 방송법 제5·6조에서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화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도 방송의 공적성과 공익성을 분별한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던 10여 년 전만 해도 어찌구무없는 종교 편파방송이 있었다. MBC가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17개 지방국에서 순복음교회가 자체 제작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선교용 비디오를



한 광고의 '종교편향적 지막' 사례.

거액의 돈을 받고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 1980년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방송을 했었다. 1992년 보리방송모니터링 등 시민단체들이 5개월간 노력한 끝에 방영을 중단시켰지만,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특정종교의 선교에 앞장선 꼴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1993년에는 개신교 장로가 경영하는 (주)신원예배예설의 의류제품 광고화면 왼쪽 위에 '주일(主日)은 쉽다'라는 지막을 내보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공영방송에서 공용어인 '일요일' 대신 기독교 용어인 '주일'을 방송용으로 쓰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이며 방송법에도 저촉됨을 지적했고, 결국 방송심의위원회·고등법

원·대법원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후에야 변경시킬 수 있었다. 위 두 사건은 시민의 높은 권리 의식 없이는 방송 권력에 편승한 선교행위, 즉 종교권력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1997년 김용국 교수는 차범근 감독의 '기도' 행위를 두고 "그러한 사랑을 권력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을 때, 차 감독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운운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권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게 틀림없다.

기도와 권력, 사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떻게 공적이고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란 말과 연결될까.

권력이란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강제적 힘으로 느껴질 만한 모든 세속적 구조를 통칭 권력이라고 한다. 정치권력 외에 언론·학교·재벌·종교 등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성을 띠는 사회 권력이 된다. 방송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이 공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어 표출

하는 것도 분명히 권력행위인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의 권력화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정치권·언론매체·교육기관·스포츠계 같이 대중적 힘이 되는 곳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종교적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기독교방송이나 할렐루야 축구팀 같이 특수한 집단 내에서 하는 종교행위까지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그 종교행위를 국민의 공적 공간인 공영방송에까지 끌고 나오는 데 있다. 국민들이 거부할 수도 없이 강제로 동참해야 하는 거북스러움에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스포츠 선교'의 일환으로 "인터뷰 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라"는 교육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이 방송에서 큰 신장기를 걸고 출연하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타종교인들 보란 듯이 대월(?) 신장기를, 그것도 일부러 걸어서 드러내 보이는 일부 연예인들을 보면 공인의 자질이 의심된다.

방송편집자들이 그러한 종교적 과잉표현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그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비추는 몰상식한 경우마저 있어 보인다. 오죽하면 방송계나 연예계에 오래 전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자조적인 체념의 소리도 들리겠는가. 방송모니터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등 종교편향을 감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방송 권력에 편승한 종교오염이 우려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공인이 공공 영역에서 개인의 종교 신념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은 일관행위다. 특히 공영방송이 종교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인·국가대표·연예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p>불자 정보 654호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p>	<p>문화예술포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구로 APT 대단지 ● 5층 280평(법당, 선방, 공양간 등 170평, 세미나실, 철보, 자연염색, 한지공예 등 110평) ● 6층 70평(집무실, 요사채) ●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 (조정가능) ● 시설비 1억(반값이하) <p>011-9814-0278</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72평 ● (아파트 약전체대 상가 5층분양받았음) ● 모의시설 화장실, 산사와 같은 포교원 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 포교에 알맞은 스님 회상의 조건 ● 가액: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p>016-9878-1282</p>	<p>도심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 법당, 방,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점포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p>011-310-0361 02)2236-0361</p>	<p>사찰(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함창군 가야면 구원리 74-7의 4근 ● 평수: 2,100평 ● 가액: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합,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p>011-9837-8668 061)362-9863</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김천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3억원 <p>016-274-3170</p>	<p>사찰(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 천안 병천 ● 부지: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상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4억원 <p>011-339-1946 011-294-8497</p>	<p>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고령 국도변대우에서 30여분 ●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80평 (인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 500평 ● 요양원 및 주조(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상 및 운영할 분 요양 ● 가액: 2억1천만원 ● 인수가: 9700만원 용자 안고 <p>017-501-2315</p>	<p>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달서구 상인동 ● 법당: 65평 ● 특징: 아파트 밀집지역에 최고의 시설 ● 앞산 아래 무궁화 지역이며 전철역에서 5분거리 ● 뒷백화점 근교,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90만원 ● 시설비 5천2백만원 <p>011-9876-3388</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양평 동남부 ● 부지: 2천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중무소, 요사채 ● 남향의 아담한 사찰 ● 가액: 5억3천만원 <p>017-372-8968</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232평, 신축건물(3년) 60평 ● 현식당 운영중이며 심야전기 설치 ● 시설: 식당 큰방 (15평) 주차시설 완비 ● 강, 산이 어우러져 주변경관수려 ● 가액: 3억5천만원 (절충가능) <p>011-803-7448</p>	<p>주택가포교당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 1 월 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지 ● 가액: 4억2천만원 (용자 6200만원 포함) <p>031)257-5991 011-753-5991</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탕화, 감로탕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 57만원, 시설비 1,900만원 <p>010-2284-0737</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 부지: 7천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가액: 39억 ● *도심부근가깝기(법당+대지300평)9억 ● *교중은 근교 신축사찰 <p>부산 영남지방 동주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현역,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p>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계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때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때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박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더라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지 나가지 않는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